

씨름의 세계화 방안

Globalization of Ssireum

김기탁*, 김홍설*, 강호정**, 황선환***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Ki-Tak Kim(ktssports@pcu.ac.kr)*, Hong-Seol Kim(hongseol@pcu.ac.kr)*,
Ho-Jung Kang(hjkang66@pcu.ac.kr)**, Sunhwan Hwang(shhwang@uos.ac.kr)***

요약

본 연구는 씨름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세계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 분석, 전문가 인터뷰, 설문조사, 내·외국인 인터뷰 등을 통해 씨름의 특성과 현황, 이미지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씨름의 세계화 방안은 제도화를 통한 스포츠로서의 세계화와 문화정체성이 강한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포츠로서의 세계화를 위해 제도화, 학교체육을 통한 교육, 외국인 선수 육성, 이벤트 가치 극대화, 씨름 조직의 전문화, 국제지도자 양성, 자연적 확산 유도 등을,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세계화를 위해 세방화(glocalization), 문화코드화, 의식(ritual)의 강화, 정신적 가치 발굴, 축제와의 연계, 씨름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씨름 | 세계화 | 스포츠 | 전통문화유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Ssireum and to investigate a basic direction for globalization of Ssireum. Examining disposition, situation, and image of Ssireum through literatures analysis, survey,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In detail, it's recognition and image perceived by customers and general individuals were investigated, and it's perception and related image of foreigners were analyzed. We examined the situation and the various problems of Ssireum on the base of site and customers. We made a conclusion that Korea has to make a great deal of effort for globalization of Ssireum both as a sport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s for the globalization and as a heritage which has a strong identity. As detail alternatives for the globalization of Ssireum, education through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bringing up foreign athletes, maximization of event values, specialization of Ssireum organization, international instructor, glocalization, culture coding, enhancement of ritual, connection with festival and so on were suggested.

■ keyword : | Ssireum | Globalization | Sports | Heritage |

* 이 논문은 2011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ISS-11-C02002)

접수번호 : #120612-003

접수일자 : 2012년 06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2년 07월 13일

교신저자 : 황선환, e-mail : shhwang@uos.ac.kr

I. 서론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스포츠활동인 씨름은 '살과 살이 부딪치고, 숨과 숨이 겨루며, 상대의 맥박을 자기 자신의 숨결처럼 느끼면서 물 위를 걷듯이 모래판에 무흔(武魂)을 담아 음양의 이치인 태극의 그림을 그리는 신체의 유희'이다. 씨름은 농경 중심의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민족의 놀이이자 서민들의 축제로서 계승되어져왔다[1]. 더욱이, 2006년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포함되면서 씨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스포츠로서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2].

그러나 현대의 씨름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욕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점점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민속 씨름계의 조직은 내분되어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공중과 방송의 중계권 계약 취소로 2005년 추석 대회 이후로 한동안 이렇다 할 대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팀들이 해체되고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스타 선수들이 일본의 이종격투기 무대에 진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씨름인을 중심으로 협회 및 관심 기관들의 노력으로 여자 씨름 대회 등 새로운 이벤트가 개발되고 세계씨름연맹이 창설되는 등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있으나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서 벗어나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서의 위상과 씨름의 존립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수많은 팬들과 씨름관계자 및 전통문화연구자, 스포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씨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1990년대부터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일본 스모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송일훈 등[1]은 민속씨름과 일본 스모의 유래 및 경기방식과 대회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씨름 전용시설의 부재, 토너먼트 경기 방식, 전통문화와 다른 경기방식으로 인한 흥미유발 실패, 관중석과 경기장과의 먼 거리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2](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속씨름의 이해, 씨름의 현황분석, 스모를 통한 벤치마

킹, 씨름에 대한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한씨름협회와 한국씨름연맹 간의 조직 갈등 해결을 위한 조직정비, 씨름 이미지 및 인식 제고, 경기규칙 및 운영개선, 저변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태현과 임순길[3]은 우리나라 씨름경기에 대한 역사 및 철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부족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씨름경기의 국기화, 국기관 건립, 경기규정변화, 기업참여의 활성화, 씨름학회의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황의룡[4]은 씨름의 유지·발전을 위해 강력한 조직과 구성원의 단결을 강조했고, 선수 대형화에 따른 씨름 기술의 퇴보로 스타선수가 없다는 것과 심판에 대한 불신과 관중수 저하로 미디어 가치도 동반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스모와는 달리 씨름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문화의 프로스포츠로써 국민적 동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씨름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측면과 더불어 씨름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연구가 종종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소비자 조사를 통한 실증자료의 분석 없이 문헌 연구 및 사례 비교연구에 국한되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그리고 소비자 조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한 후 장기적인 대안과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대사회 혹은 미래사회에서의 스포츠 문화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인류의 콘텐츠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씨름의 부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세계화라는 목표설정을 통해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사실, 우리의 민속씨름과 유사한 세계 각국의 스포츠들은 정식 스포츠종목으로서의 세계적 확산 및 문화콘텐츠로서의 확산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의 스모, 몽골씨름, 중국씨름 등이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외에도 저마다의 정통성을 앞세워 지구상의 대표적인 씨름으로 자리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씨름 또한 세계 각국의 씨름 관계자로부터 경기 방식 및 기술 등에 있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세계화 추진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씨름이 처한 현실과 주변 환경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전통 스포츠문화인 태권도 및 씨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스모 사례를 분석하여 씨름의 세계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씨름의 현황 파악 및 고객분석, 잠재 고객분석,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문헌조사, 심층면접, 사례연구,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씨름에 관한 역사, 전통문화로서의 가치, 스포츠로서의 특성 등을 파악함은 물론 현재까지 이루어진 씨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단해보기 위함이다. 대상 문헌은 학회지 논문 및 학위 논문, 씨름 관련 조직의 현황 자료 및 보고서, 연구원 및 기타 기관에서 실시한 용역연구 보고서 등이 포함되었다.

심층면접은 전문가 면접과 소비자 면접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씨름 관련 전문가를 심층면접하여 씨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씨름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이후 씨름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도출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반복 실시했다. 소비자 면접은 잠재시장 중 주요 타깃으로 선정된 소비자 그룹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씨름에 대한 인식, 씨름의 직·간접 소비 이유, 소비자로서의 씨름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였고, 설문조사의 문항을 구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와 유사종목인 일본의 스모, 세계 각국의 유사씨름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이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문헌조사, 심층면접,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소비자 조사 요인을 도출한 후 각 요인에 맞는 문항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에는 기존의 몇몇 용역연구에서 사용된 현황, 인식, 이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는 총 460명으로 남

자가 265(57.6%)명, 여자가 195명이고,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직업의 분포는 전문직, 대학(원)생, 사무직, 자영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지역장사씨름대회, 명절장사씨름대회, 천하장사씨름대축제, 생활체육 군민씨름대회 등의 씨름 관련 이벤트를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이벤트의 과정과 분위기, 관람객과 참여자들의 반응,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씨름의 인지도, 이미지, 특성 및 참여의도, 관람의도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21명을 연구진이 직접 실시하였고,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연구 조사원 및 현지 거주 스포츠 학자들을 통해 12명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 결과는 내용분석을 통해 외국인들의 씨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III. 씨름의 특성

1. 전통문화로서의 특성

씨름은 예로부터 내려져오는 세시풍속 중 하나이자 제위행위(祭位行爲)로 함께 논다는 유희의식(遊戱意識)과 힘을 겨룬다는 전투의식(戰鬪意識),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이 융합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이자 소중한 민족 자산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세시풍속이 농경생활과 연관이 많은 만큼 씨름도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다[5].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봄부터 농한기 까지 쉴 사이 없이 농사일을 하다 농한기를 맞으면 고된 육체와 정신적 긴장을 풀기 위하여 씨름을 즐겼으며[2], 계절에 따라 중요한 절기마다 서민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즐겨 행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일상생활에서 휴식, 활력소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려

는 일환으로 민족적 저항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선씨름협회는 민족적 저항운동에 앞장서 지속적인 씨름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씨름은 협회의 노력과 민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계속해서 진승되어 내려져 올 수 있었으며[6], 국민들의 서러움을 해소시켜주고 긍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현재 씨름은 2006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스포츠 중 하나로 그 위상을 인정받았고, 모든 협회가 모여 씨름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대한씨름협회는 씨름인구 저변확대와 학교씨름·여자씨름 활성화, 국민생활체육으로서의 확산여건조성 등 씨름을 통해 국민정신의 계도, 예와 도의 씨름정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스포츠로서 씨름을 정립해 나가고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나[6], 여전히 씨름선수 부족, 팀 해체, 단체 간 분쟁 지속 등 여러 문제점이 전통문화의 상징으로서 씨름을 위협하고 있다[2].

결과적으로, 씨름은 현재의 활성화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서 매우 큰 가치를 함양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투자,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2. 스포츠로서의 특성

이와 같이 씨름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국민들이 인식하는 스포츠로서의 특성은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며, 소비가치 또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대의 씨름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선수저변 약화 및 관중 수 감소, 프로대회의 개최 중단 및 씨름단체 간 마찰과 분쟁 증가 등 자생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 중반에 비해 10년 후 2000년대 중후반에는 등록선수 및 구단 수, 평균 관중수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포츠로서의 씨름의 특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단 씨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똥똥하다', '지루하다', '거부감이 든다', '별로 재미없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날쌔다', '빠르다', '힘이 세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일본의 스모와 비교하면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었다. 또한 대부분이 참여의도나 관람의도가 희박했고, 한국의 문화체험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같이 보겠다는 의견 및 누군가 데리고 간다면 한 번 정도는 관람 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씨름의 특성 분석 결과

특성	응답	기타
씨름관련 연상	천하장사(22%), 전통·민속(17%), 이만기 등 선수(11.6%)	모래, 살바, 황소 등
씨름선수 이미지	힘이세다(49.5%), 똥똥하다(17.2%), 멋지다(8.7%)	무식하다, 야만적이다
씨름의 흥미도	재미있다(22.6%), 보통이하(77.4%)	
씨름의 경기력	높은편이다(16.5%), 보통이하(83.5%)	
씨름에 대한 관여도	고관여도집단(5.7%), 저관여도집단(42%)	

* 위의 응답은 성, 연령, 소득수준 및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IV. 씨름의 세계화 전략

1.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세계화

씨름이 스포츠 종목으로서 세계화에 성공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식 경기종목 채택으로 올림픽에서 씨름 경기가 열리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많은 국가에 전파하고 최종적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중에는 중국전통씨름과 같은 우리 민속 씨름과 유사한 각국의 전통 스포츠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본의 가라테와 같은 투기 종목까지 하면 비슷한 유형의 많은 스포츠가 올림픽의 벽을 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민속무도 종목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지켜보았기에 그 과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태권도의 세계화과정 중 중요한 시발점은 1974년 미국체육회(American Athlete Union: AAU)가 정식 산하 가맹 경기 단체로 승인한 것이었다[7]. 이를 시작으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enera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GAISF),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OCA), 국제군인체육회(CISM),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총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물론 태권도가 이렇게 세계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도 많은 경쟁 스포츠 및 경쟁국의 견제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국제유도연맹에서 태권도의 세계기구 가입에 반대했고 일본의 가라테도 유사종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기구의 가입 승인을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방해공작에도 태권도가 세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 국제심판강습회 개최, 세계적으로 통일된 승단심사제도, 그리고 행정체계의 일원화 등 태권도계의 사업실적과 더불어, 국내는 물론 스포츠 선진국 등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있는 태권도의 넓은 저변과 단합된 의지 등이었다.

한편, 김중운 등[8]은 중국전통씨름의 세계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씨름의 세계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중국전통씨름은 1949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중국전통씨름협회와 중국전통씨름발전위원회, 중국전통씨름발전관리 및 홍보보급센터를 중심으로 중국전통씨름의 발전과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전통씨름의 실패 원인을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명칭의 부재, 경기규칙과 규정 비체계화, 중국전통씨름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국민 관심의 부재, 교육적 가치의 미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씨름이 스포츠로서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의 해결이 요구된다.

1.1 제도화

모든 스포츠 세계화의 첫 걸음은 아마도 제도화일 것이다. 세계화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경기장, 장비, 제반 명칭, 경기규칙 및 규정, 진행 언어 등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공통된 룰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씨름 관련 제도들이 세계화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씨름연맹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씨름의 규정(영문규정 포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정립된 것이 아니라 국내 규정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스포츠로서 씨름을 세계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씨름의 정체성과 전통성, 혹은 민족성 등을 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무조건적인 세계화 전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어쨌든 세계화라는 개념에는 더 이상 우리의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2 학교체육을 통한 교육

스포츠의 확산에 있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학교체육을 통한 방법이다. 레슬링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이 각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체육을 통해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씨름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방법이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한류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씨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스포츠로 소개되고 또 실제 씨름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레슬링이나 태권도와 같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큰 기반이 될 것이다.

1.3 외국인 선수 육성

최근 씨름계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 일환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에 스페인, 미국, 우크라이나,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석해 16강에 오르는 등 최근 수년 사이 모래판에서의 외국인 선수 활약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외국인 선수의 수준이

낮고 적극적으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자국의 국민들에게 소개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지켜본 관중들은 ‘재미있다’, ‘색다르다’, ‘신기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경기력이 부족하여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이 많았다. 그러나 233cm의 신장에 170kg이나 나가는 흑인 거구가 50cm 이상의 신장차이가 나는 금강급의 한국선수에게 맥없이 넘어지는 모습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재미거리임에는 틀림없다. 미국에서 씨름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이 선수가 비록 32강전에서 탈락했지만 2011년 천하장사씨름대축제의 최고 스타로 인기몰이를 한 것을 보면 일부에서 우려했었던 씨름의 국제화에 대해 팬들의 저항은 크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이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과제는 외국인인 대상으로 우리 씨름과 대회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하게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체계화된 씨름 기술을 전파하여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 씨름의 우수성과 재미를 알려주는 좋은 방법은 이번 천하장사 대회와 같은 외국인 선수들의 경기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세계로 전파하는 방법이다. 외국인 선수들 스스로도 자기보다 훨씬 큰 거구를 단숨에 쓰러뜨리는 한국 씨름기술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고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이러한 명장면을 세계인들이 눈으로 확인한다면 상당한 흥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외국의 메이저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최근 상대적으로 정보의 확산이 훨씬 빠른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파하는 방법을 권장할 만하다.

1.4 이벤트 가치의 극대화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중의 하나가 관람의 유효화 가능성일 것이다. 고객들이 이벤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람하는데 자연스럽게 비용을 지불한다면 일단 그 스포츠 이벤트는 시장에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씨름 관련 이벤트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벤트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씨름관련 이벤트는 지역장사 씨름대회 및 명절장사씨름대회, 천하장사씨름대축제 등 각 대회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천하장사대회 또한 보완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이벤트 품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용경기장의 건립이다. 전용경기장의 부재로 다른 용도의 체육관 또는 다목적으로 건설된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씨름대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수들의 입장과 퇴장이나, 관중석과의 거리, 또는 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효과, 기타 씨름 관련 이벤트 등의 기획에 있어서 기존의 시설들은 씨름 이벤트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다. 최근 개최된 2011년 김천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는 선수들의 대기 장소가 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옷을 입고 벗는 모습 및 편한 자세로 쉬는 모습, 기타 행사 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 및 물품 등이 그대로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팬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이벤트의 품격은 확실히 낮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전용체육관이 당장 건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 이벤트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벤트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스포츠 이벤트 전문가 및 전문 기업들이 씨름대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격상 높은 이벤트로 거듭날 것이다.

1.5 씨름 조직의 전문화

씨름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이 씨름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를 통해 씨름의 체계를 흔들림 없이 확립해나가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국내 씨름의 저변 확대, 씨름 교육, 씨름의 국제적 교류와 세계화 추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씨름은 대한씨름협회, 한국씨름연맹,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 세계씨름연맹 등의 조직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과 역량 및 현

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영역 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각 조직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씨름연맹은 프로선수가 없어 변변한 프로대회를 개최하지도 못하는 명목상의 조직으로 전락했고, 대한씨름협회는 우리나라 엘리트 씨름 선수 관리 및 대회 운영에 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으나 선수 및 예산을 독차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내 이벤트의 진행 또한 전문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연합회는 생활체육으로의 씨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지표상의 확대 이외에 실제 생활체육으로서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씨름의 세계화와 관련된 조직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분야로 세분되어 있는 씨름 관련 조직 구성원과 그 이외의 씨름인 또한, 씨름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있는 모든 대상들, 그리고 정부 및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관계자들의 씨름 관련 조직 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와 같이 씨름인 안에서 서로의 조직에 대해 견제하고 무관심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직 변화 방안은 현재의 조직에서 역할과 권한만 재분배하여 조정한다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조직이 해당 조직의 설립목적을 수행할 역량이 못 된다면 조직 자체를 재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즉, 각 조직이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갖추어진 후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권한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씨름 발전을 위한 큰 대의 아래 모여 모든 씨름 관계자들이 개인 및 현재 조직의 이해관계를 벗어던지고 난 후에야 가능할 일이다.

1.6 국제 지도자 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 선수들의 국내 씨름대회 출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현재의 수준은 단순한 재미거리 및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러한 현상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씨름의 진정한 세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글로벌 스포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수한 우리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외국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우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태권도와 같이 해외에서 개인적인 지도자 생활만을 통해 정착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도자를 파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선수 및 지도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1.7 자연적 확산 유도

태권도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세계화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밝힌 각계각층의 눈부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태권도가 개인 지도자, 유학생, 이민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유학의 필수 요소가 ‘태권도 단증’이었을 정도로 태권도 지도 능력이 있는 한국 사람은 태권도를 통해 미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다.

무도 종목으로서의 강인함, 도복의 멋, 멋진 시범, 예의를 중시하는 정신적인 가치 강조, 개인적인 수련위주의 참여 가능 등 태권도는 미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스포츠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도장’ 종목으로서의 성공요인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한 문화권에서 존재해온 신체활동을 하나의 스포츠로서 세계화한다는 것은 제도적, 전략적인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들(예: 세계기구가입, 가맹국 수 확대, 국제대회 개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적·개인적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스포츠의 세계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씨름 또한 국가 또는 조직 차원에서의 세계화 노력 뿐 아니라 개인적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씨름이 품고 있는 신체적·교육적·정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세계화

2.1 세방화(glocalization) 가능성

현대 산업구조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문화의 세계화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도 최근 한류 열풍으로 세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나 기업 및 개인들 까지 문화콘텐츠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주목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과연 우리의 고유문화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진정한 한국적인 것을 찾고 또 그 문화의 로컬리티를 강화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9]. 이러한 관점에서 씨름은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강력한 현지화(localization)를 통해 세계화(globalization)에 성공할 수 있는 즉, 세방화(glocalization)가 가능한 우리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2.2 우리 민족의 문화코드화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일본의 스모 또한 세방화로 성공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다. 스모는 사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제스모연맹 가입국이 100여 개국을 넘고 20년 전부터 세계스모선수권대회, 세계여자스모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스모선수권대회, 세계주니어여자스모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스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세계화되었다기보다는 일본의 주요 문화코드로서 세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경기자체가 일본인들의 제례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의식(ritual)이 매우 강해 타 문화권에서 흥내 내기 매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하지만 지구상의 많은 타 문화권에서 일본의 주요 문화코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2006년 이미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우리의 상징적인 문화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씨름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하다. 관람객 하나 없는 지역장사 씨름대회의 모습과 프로씨름의 소멸, 기업의 무관심, 씨름계의 갈등 등의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조만간에 소위 '잊혀져간 우리의 100대 문화' 목록

에 오를지도 모를 일이다.

씨름이 우리의 전통 문화 코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문화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만한 문화적 전통성을 재확인하고 훼손된 부분이나 그동안 변형된 부분이 있으면 복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고유성'과 '특수성' 및 '지역성(locality)'을 확보하는 과정 없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씨름에 대한 정체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3 이벤트 의식(ritual)의 강화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기 복잡 및 경기 전 후의 모든 의식(ritual) 등을 우리 전통문화에 맞게 독특하고 품격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선수들에 대한 예우 및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 등에도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일반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이른바 '신비주의 마케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씨름 이벤트는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어 팬들이 우상으로 삼을 만한 이미지가 연출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경기 전·후에 행해지는 다양한 이벤트 또는 의식들도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좀 더 하나의 전통 의식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4 정신적 가치 발굴

경기 및 전체 이벤트에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향유할만한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풍요로움을 기원한다든지, 평화의 정신을 부여한다든지, 예의를 존중한다든지 등의 타 문화권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태권도의 확산과 정착이 민족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구효송[10]은 태권도에 깃든 민족주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얼굴과 이름과 글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분위기를 떨치고 내 자신의 얼굴을 되찾으려던 초기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 본다면, 태권도가 우리의 전통과 민족정신을 내세웠던 것을 어찌 보면 너무

도 당연한 시대적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분명히 당시의 태권도에는 단순한 격파 이상의 ‘격파’가 숨어 있었고, 단순한 이단옆차기 이상의 ‘옆차기’가 들어 있었다. 요즘 세대의 태권도인이 보여주는 격파가 단순히 운동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당시에는 찌들릴대로 찌들렸던 우리의 삶을 부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간다는 어떤 상징성까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즉, 그 시대의 다양한 상황에서는 태권도를 통해 민족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씨름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신을 부여하여 단순한 들배지기 이상의 ‘들배지기’, 또는 단순한 뒤집기 이상의 ‘뒤집기’라는 숨은 정신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신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2.5 축제와의 연계

씨름 관련 이벤트를 축제화하는 것도 타 문화권에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저마다 독특한 축제가 벌어지고 타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축제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수없이 많은 전통문화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대형 축제를 기획하고 그 중심에 씨름이 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타 문화권에 보다 쉽게 인지될 것이다.

2.6 다양한 씨름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최근 문화 산업의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며, 한류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며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씨름이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계승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로 소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할 수 있는 씨름 관련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콘텐츠의 범위는 매우 넓다. 태권도의 예를 들면, 태권도를 주제로 만든 영화(돌려차기, 철없는 아내와 과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 이방인 등), 애니메이션(로봇태권브이 등), 무대예술(태권다이아몬드, The Moon 등) 뿐 아니라 각종 태권도 보급용 영상과 신문, 방송, 인터넷

넷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모두 포함된다.

씨름도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으나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연재만화, 소설 뿐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상품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유산의 확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게임 콘텐츠의 개발도 추천할 만하다.

V. 결론 및 제언

씨름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과거 한 때 전 국민이 모래판에 시선을 모으며 장사들의 승부에 숨죽이던 시절이 있었으나 IMF 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팀의 해체, 기업들의 외면, 선수 이탈, 조직간의 불화, 타 스포츠의 상대적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관련 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씨름인들의 노력으로 씨름이 다시 일어선다고 하고 있으며 단순히 국내에서 옛 명성을 찾고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지구촌의 스포츠로 세계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씨름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지구촌 한 지역의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스포츠가 세계화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해당 지역의 전통 문화 유산으로서 해외에 소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독특한 문화유산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타 문화와 차별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등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의 스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타 문화권으로의 보급이 용이하도록 제도화, 현대 스포츠화하여 다수의 국가에 전파하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지구촌의 대표적인 스포츠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의 태권도가 좋은 예이다. 또 하나 프로스포츠로 발전하여 하나의 큰 산업을 형성하여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세계화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거나 혹은 프로스포츠로 발전하게 되면 전통 문화적 요소는 상당 부분 변질되거나 퇴색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최근에는 올림픽의 아마추어리즘이 많이 유연해지고 프로스포츠와의 벽이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스포츠로서 씨름의 세계화와 프로스포츠로서의 세계화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씨름의 세계화를 제도화를 통한 스포츠로서의 세계화와 강한 정체성을 지니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의 세계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현재 씨름계의 움직임과 정부의 관심, 그리고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미미한 힘으로나마 이룩해 온 세계화의 업적 등을 감안했을 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치증하기 보다는 국내에서는 민속 씨름의 형태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씨름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국외로는 스포츠로서의 씨름 세계화를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방향으로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면 서로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씨름의 세계화라는 비전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송일훈, 이동현, 손수범, "민속 씨름과 일본 스모(相撲)의 유래 및 경기방식과 대회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7권, pp.83-99, 2006.
 [2] 문화관광부, 한국씨름관 건립 기본 방향 연구, 2007.
 [3] 이태현, 임순길, "민속 씨름경기의 전개 양상과 발전 과제 모색", 대한무도학회지, 제7권, 제2호, pp.35-44, 2005.
 [4] 황의룡, "프로씨름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직, 경영,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41권, 제3호, pp.247-257, 2002.

[5] 최충환, "조선 후기 민속씨름에 관한 소고 : 세시풍속지를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19권, 제1호, pp.329-343, 2000.
 [6] 민상근, 씨름의 원류와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 정찬모,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3권, 제2호, pp.129-141, 2008.
 [8] 김종운, 박승완, 허용, 정찬수, "중국전통씨름(中國傳統摔跤)의 실패원인 분석을 통한 한국씨름 발전 및 세계화 선행과제 탐색", 대한무도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3-27, 2010.
 [9] 박치완, "글로벌시대의 문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문화코드, 문화콘텐츠, 지역세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제27권, pp.37-72, 2011.
 [10] 구효송, "태권도: 민족주의에서 세계화로", 세계태권도학회지, 제5권, pp.27-36, 2001.

저 자 소 개

김 기 탁(Ki-Tak Kim)

정희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사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체육 행정 석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박사(스포츠 경영학 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 마케팅, 소비자행동

김 홍 설(Hong-Seol Kim)

정회원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레저스포츠학, 스포츠사회학

강 호 정(Ho-Jung Kang)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기업재무, 투자론, 스포츠경영

황 선 환(Sunhwan Hwang)

정회원



- 2008년 8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여가학 박사졸업
- 2010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여가사회학, 여가심리학, 여가경영, 청소년 캠프